



아트 퍼니처 작가 최병훈



아르카디아 초이의 2층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최병훈 작가.  
640(길이)×117(폭)×72(높이)cm 크기의 테이블은 벽 길이에  
맞춰 새로 제작한 것이다. 의자는 한스 웨그너가 디자인한  
칼한센앤센의 CH24 위시본 체어. 뒤편에는 파리, 뉴욕 등  
해외에서 진행한 전시 스케치 사진을 걸었다.

# ‘아르카디아’를 좇는 여정

기능성과 장식성을 가구의 미덕으로 여기던 1990년대, 가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아트 퍼니처 작가 최병훈.  
그가 자신의 이상향을 현실화한 프라이빗 전시 공간 ‘아르카디아 초이’를 오픈했다.

글 양혜연 기자 | 사진 박찬우



“파주 작업실 아틀리에 초이atelier choi를 꾸린 지 20여 년이 지났어요. 워낙 작업량이 많다 보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업실에 작품이 쌓여갔죠. 그러나 작품을 종종 포장해 묵혀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바람도 쏘이고 해야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아틀리에 초이를 확장하거나 아예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염두에 두었다. 고민이 깊어질 무렵 자주 드나들던 파주출판도시에서 한 건물을 발견했다. 군더더기 없고 깨끗한 것이 그의 작품과 포개져 보였다.

“이곳의 이름은 스스로에게 던진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스신화 속 헤르메스가 탄생한 곳이자 목신인 그의 아들 판이 다스린 지역이라 전해져 내려오는 그리스 펠로폰네소스반도 내 ‘아르카디아’. 굽이치는 산으로 둘러싸여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치며 자연 그대로의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지상낙원. ‘나의 이상향을 펼쳐 보이겠다’는 그의 의지를 담은 프라이빗 전시 공간 아르카디아 초이가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그가 꿈꾸는 이상향**

기존 건축 언어를 전복해 콘크리트 구조체를 겉으로 드러내고, 그 안에 유리 커튼월을 세운 독특한 구조. 이는 모더니즘 건축과 디자인의 기수가 된 루이스 설리번의 발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에 반기를 들 듯 가구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역겹의 시간이 깃든 단단한 돌과 자연의 부드러움을 내포한 나무 및 탄소섬유, 스테인리스 스틸 등 물성이 서로 다른 재료를 접합해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만들어낸 최병훈 작가의 발자취를 떠오르게 한다.

“상상하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레노베이션이 필요했어요. 이 건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죠.” 건축설계 사무소 아arki움이 지은 이 건물의 레노베이션은 당시 프로젝트를 중추적으로 이끈 정승권 건축가가 맡았다. 반년 남짓한 공사 기간을 거쳐 완성한 건물의 가장 큰 변화는 1층 전시 공간과 이어지는 실외 공간을 새로 지었다는 점. 대지면적 977.9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사각 매스roman 이루어진 건물은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녹지를 마주하고 있었다. 푸르른 자연을 아르카디아 초이의 일부처럼 느끼게 하고 싶던 최병훈 작가는 건물과 접한 바닥의 층을 높이고 낮은 담을 설치해 건너편 녹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이 자연스레 스미는 공간을 만들었다. 남서향 건물 내부는 세 벽이 유리 커튼월이었는데, 북쪽 두 면에 새로이 벽을 세우고 남은 유리 커튼월에는 패브릭 커튼을 설치해 젖히기만 하면 바로 자연이 보이는 가변적 공간으로 연출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아르카디아 초이의 지하는 수장고로 사용하고, 모두 합쳐 3백 평(1000㎡)에 달하는 1·2층과 실외 공간에는 작품을 두었다(3층과 4층은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고민 중이라고). 기둥 하나 없이 뿔뿔린 전시 공간에는 그의 연작 ‘태초의 잔상’의 초기작부터 근작까지를 포함한 대표 작품 40여 점과 웬들 캐슬과 구라마타 시로의 의자 등 개인 컬렉션 일부가 자연의 질서를 따르듯 조화롭게 배치돼 있다.

새로운 공간을 두루뭉술하게 상상하던 작가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그중 1년은 설계에 쏟았다. “공간을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실외 공간만 해도 처음에는 연못처럼



**1** 레노베이션하며 새롭게 지은 1층 실외 공간에 설치한 ‘태초의 잔상’ 연작의 신작 앞에 선 최병훈 작가. 산 능선을 연상시키는 슈퍼미러 스테인리스 벽 너머에는 같은 소재로 제작한 ‘명상 의자’가 놓여 있다.

**2** 작품을 보관하던 아틀리에 초이의 공간에는 새로운 작업을 위한 인도네시아산 흑단을 펼쳐두었다.

**3** 외관만 보고는 어떤 공간인지 예측할 수 없는 아르카디아 초이의 담 모퉁이에 설치한 자연석은 이곳이 최병훈 작가의 공간임을 암시한다.

파주출판도시의 변두리, 격자무늬 콘크리트 파사드가 남다른 미학을 뽐내는 건물 하나가 우뚝 서 있다. 이곳의 정체를 유추할 단서는 건물을 빙 두른 낮은 담 모퉁이에 올라앉은 큼지막한 돌과 그 아래 새겨진 ‘arcadia choi’란 글자. ‘파주’ ‘choi’ ‘돌’, 눈치가 빠른 독자라면 이미 짐작했겠지만 이곳의 주인은 바로 아트 퍼니처 작가 최병훈이다.

국내에서 가구의 역할은 기능성과 장식성이 전부이던 1993년, 최병훈 작가는 선화랑에서 열린 개인전 제목에 ‘아트 퍼니처’란 단어를 사용하며 가구를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시켰다.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휴스턴 미술관, 파리 장식미술관, M+ 미술관 등 소장처 리스트로도 짐작할 수 있듯 돌과 나무를 주재료로 삼아, 도도와 선품으로 대변되는 동양철학과 자연에 대한 경의심을 담은 그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1



2

1 1층 전시 공간 전경. 작가를 대표하는 '태초의 잔상' 연작의 초기작부터 근작까지는 물론 다양한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2 아틀리에 초이 마당에 펼쳐진 수석 위에 앉은 최병훈 작가.

바닥을 물로 채우려 했죠. 작품뿐만 아니라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요. 그러나 관리가 만만치 않아 결국 그 꿈은 접었어요.(웃음) 수많은 시물레이션 끝에 비로소 단장을 마친 아르카디아 초이의 화룡점정은 역시 새롭게 지은 실외 전시 공간이다. "이곳엔 '태초의 연작' 신작들을 두 개의 명상 존으로 나눠 전시했어요." 내부에서 실외로 이어지는 문을 지나면 나타나는 직삼각형 슈퍼 스테인리스 스틸 벽. 구불구불하게 마무리한 절단면이 마치 산능선을 연상시킨다. 직삼각형 설치물 반대편에는 같은 소재로 제작한, 발끝 너머에 자연석 한 덩이가 놓인 '명상 의자'가 자리한다. "직삼각형 설치물과 의자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의자에 앉아 돌을 관조하며 스스로를 되짚어볼 수 있는 작품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형태가 같은 작품을 공간 오른쪽에 방향을 달리해 하나 더 설치했다는 것이다. 각도와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해 설정한 두 작품은 해의 움직임에 따라 번갈아가며 한쪽 작품 바닥에만 그림자가 지는데, 이는 음과 양 그리고 자연의 순환을 상기시킨다. 코너를 돌면 나오는 두 번째 명상 공간에는 담 높이

와 일치시킨 슈퍼미러 스테인리스 스틸 사각 벽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운 또 다른 '태초의 잔상' 신작이 자리한다. 판을 고정하는 인도네시아 산 현무암 바잘트basalt 위에 앉으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무한히 확장하는 공간. 이는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라고 말하는 듯하다.

#### 다름은 곧 생명력

다시, 아르카디아의 전설로 돌아가보자. 고대 그리스 중부에 실존한 지역 아르카디아에서 태어난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자신의 고향에 대해 매년 음악 경연을 한다는 사실 외에는 보잘것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말했다. 그저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고립된 곳이었다고. 그런 아르카디아가 관념적 이상향이 된 것은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시집 <목가집>을 통해 예찬하면서부터다. 니콜라 푸생, 루벤스 등 이곳을 짓과 꽃이 흐르는 땅으로 작품 속에 묘사한 르네상스 이후의 수많은 화가도 이에 한몫했으리라.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나니, 아르카디아 초이란 이름이 그래서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도 아닌 것을 '그 무엇'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예술가가 하는 일이 아니던가.

이쯤에서 우리는 최병훈 작가가 '태초의 잔상' 연작명을 통해 전하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빅뱅 이후의 잔상일 뿐이다"라는 메시지

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실재하는 아르카디아 초이가 문을 연 것은 불과 한두 달 전이지만, 이는 잔상일 뿐 그의 이상향이 탄생한 순간은 40여 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오래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지 모른다. 그의 머릿속에 어째서 순수 미술에 비해 공예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지, 왜 가구는 그 자체로 예술이 될 수 없는지란 의문이 들었던 그 순간.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귀함을 느끼는 게 만드는 것,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개념인 예술을 좇으며 '다름'을 특별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어느 때 말이다.

"앞으로 쓰여질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지금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모두예요. 따라서 지나간 과거만을 답습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고, 각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해요. 그렇기에 '다름'은 특별함이자 곧 생명력이예요." 가구를 예술의 매개체로 바라볼 수 있었고, 모두가 "목공예를 다 망친다"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곳곳이 아트 퍼니처란 단어를 내뱉을 수 있었으며, 1996년 파리에에서의 첫 개인전을 준비하면서도 서구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뿌리를 지킬 수 있던 것은 모두 이 생명력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 마르지 않는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상향을 향한 그의 여정에 뜻이 되어주리라. ●